船歌 배따라기

狂炎奏鸣曲 광염소나타

荞麦花开时 메밀꽃 필 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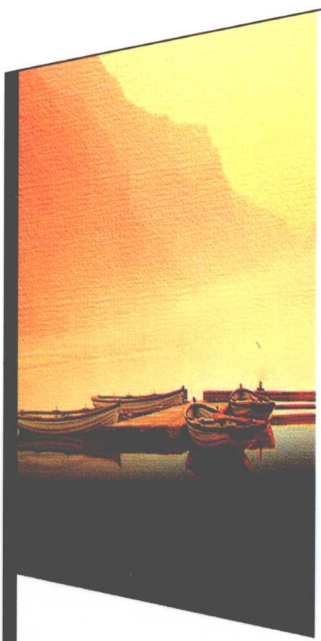
小渔村 갯마을

韩国文学名著 韩汉对照系列丛书

# 배따라기

# 船歌

●金东仁／著 ●权赫律／编译



在一个偏僻的小渔村，住着村民称美的兄弟两家。然，心胸狭窄的兄长屡屡无中生有地怀疑妻子不贞，甚至怀疑到与弟弟有染，致使妻子投海自尽。兄长幡然醒悟，到处寻找愤然离家出走的弟弟，闲余吟唱弟弟擅长的当地『船歌』。作品以第三者观察者的角度，采用了第一人称之人物转述主人公兄长所言的形式。

吉林大学出版社

韩国文学名著 韩汉对照系列丛书

# 船歌

·金东仁/著·
权赫律/编译

吉林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船歌/(韩)金东仁著；权赫律编译. —长春：吉林大学出版社，2009.10
（韩国文学名著韩汉对照系列丛书）
ISBN 978-7-7-5601-5009-3

Ⅰ.船… Ⅱ.①金… ②权… Ⅲ.①朝鲜语—汉语—对照读物 ②长篇小说—韩国—现代 Ⅳ.①H559.4：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90780号

韩国文学名著韩汉对照系列丛书

# 船　歌

◎作者　（韩）金东仁
◎编译　权赫律
◎责任编辑　张显吉　徐　佳
◎责任校对　张显吉　徐　佳
◎封面设计　张沭沉
◎版式设计　张沭沉
◎出版发行　吉林大学出版社
◎社址　长春市明德路421号
◎邮编　130021
◎发行部电话　0431-88499826
◎网址　http://www.jlup.com.cn
◎E-mail　jlup@mail.jlu.edu.cn
◎印刷　长春市利源彩印有限公司

版权所有　翻印必究

150mm×230mm　16开　10.625印张　107千字
2010年1月第1版　2010年1月第1次印刷
ISBN 978-7-5601-5009-3
定价：15.00元

# 차 례
# 目录


배따라기

船　歌…… 1

광염소나타

狂炎奏鸣曲…… 41

메밀꽃 필 무렵

荞麦花开时…… 99

갯 마 을

小渔村…… 125

배 따라기

# 船　歌

金东仁著·金晶译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

좋은 일기이다.

좋은 일기라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 우리'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도 못할 위엄을 가지고, 높이서 우리 조그만 사람을 비웃는 듯이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하늘은 아니고, 가장 우리'사람'의 이해자인 듯이, 낮게 뭉글뭉글 엉키는 분홍빛 구름으로서 우리와 서로 손목을 잡자는 그런 하늘이다. 사랑의 하늘이다.

나는 잠시도 멎지 않고, 푸른 물을 황해로 부어내리는 대동강을 향한 모란봉 기슭, 새파랗게 돋아나는 풀 위에 뒹굴고 있었다.

이날은 삼월 삼질, 대동강에 첫 뱃놀이를 하는 날이다. 까아맣게 내려다보이는 물 위에는, 결결이 반짝이는 물결을 푸른 놀잇배들이 타고 넘으며, 거기서는 봄 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이, 우단보다도 부드러운 봄 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그리고 거기서 기생들의 노래와 함께 날아오는 조선 아악(雅樂)은 느리게, 길게, 유창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또 애처롭게 —— 모든 봄의 정다움과 끝까지 조화하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대동강에 흐르는 시커먼 봄물, 청류벽에 돋아나는 푸르른 풀어음, 심지어 사람의 가슴속에 봄에 뛰노는 불붙는 핏줄기까지라도, 습기 많은 봄 공기를 다리 놓고 떨리지 않고는 두지 않는다.

真是一个好天气。

虽说是好天气，天空并非万里无云——天空并非带着让我们“人类”无法靠近的威严，也并非傲慢地嘲笑着我们“人类”的渺小。天空似乎非常理解我们“人类”的心思，红红的云彩在低空连成一片，仿佛要拉住我们的手。真是一片可爱的天空。

清澈碧绿的大同江水，奔腾不息，流入黄海。我就躺在那牡丹峰山脚下绿油油的草地上。

这天是阴历三月初三，是大同江泛舟民俗节的头一天。远远地望去黑黝黝的水面上，花花绿绿的游船在穿梭往返，船上奏出的各色旋律，轻轻搅动着春天温暖的空气，传出很远很远。还有伴着歌妓的歌声传来的朝鲜雅乐，时而悠扬，时而柔和，时而还夹着一丝哀怨——这些都与春天的柔情构成了和谐的音符。大同江流淌的绿油油的春江水、清流壁上萌发的一重重新绿、甚至人们心中被春天点燃的生命的激情，都在轻易放走这美妙春夜的氛围。

봄이다. 봄이 왔다.

부드럽게 부는 조그만 바람이 시커먼 조선솔을 꿰며, 또는 돋아나는 풀을 스치고 지나갈 때의 그 음악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이다.

아아, 사람을 취케 하는 푸른 봄의 아름다움이여! 열다섯 살부터의 동경(東京) 생활에 마음껏 이런 봄을 보지 못하였던 나는, 늘 이것을 보는 사람보다 곱 이상의 감명을 여기서 받지 않을 수 없다.

평양성 내에는, 겨우 툭툭 터진 땅을 헤치며 파릇파릇 돋아나려는 버들의 어음으로 봄이 온 줄 알 뿐, 아직 완전히 봄이 안 이르렀지만, 이 모란봉 일대와 대동강을 넘어 보이는 가나안 옥토를 연상시키는 장림(長林)에는 마음껏 봄의 정다움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꽤 자란 밀, 보리들로 새파랗게 장식한 장림의 그 푸른 빛, 만족한 웃음을 띠고 그 벌에 서서 내다보는 농부의 모양은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가 있다.

구름은 자꾸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그 밀 위에 비치었던 구름의 그림자는 그 구름과 함께 저편으로 몰려가며, 거기는 세계를 아까 만들어놓은 것 같은 새로운 녹빛이 퍼져 나간다. 바람이나 조금 부는 때는, 그 잘 자란 밀들은 물결과같이 누웠다 일어났다, 일록 일청(一綠一靑)으로 춤을 춘다. 그리고 봄의 한가함을 찬송하는 솔개들은 높은 하늘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더욱 더 아름다운 봄에 향기로운 정취를 더한다.

"다스한 봄정에 솟아나리다. 다스한 봄정에 솟아나리다."

나는 두어 번 소리 나게 읊은 뒤에 담배를 붙여 물었다. 담뱃내는 무럭무럭 하늘로 올라간다.

春天，春天来了。

轻柔的微风穿过松树，掠过嫩绿的小草时发出的声响，也仿佛是动人的音乐，这是我从来都不曾听过的美妙的音乐。

啊，令人陶醉的春天，绿色盎然的春色！十五岁开始的东京生活，从来都不曾让我尽情享受这么美丽的春天，比起经常能领略这美丽春色的人，我不能不倍感酣畅。

平壤城内的春色尚不浓厚。还只能通过还埋在土里的嫩草芽，即将发出的柳树芽，才能感受春天微弱的气息。然而，牡丹峰一带和使人联想圣约之地的长林，却可尽享春天带来的温情。

而且不难想象，站在长势喜人的麦田里，看着那绿油油的嫩苗，露着满意的笑容的农夫模样。

朵朵白云，飘浮在蓝天里。它的影子映在麦田上，跟着那飘动的白云，在那里移动着，随之一片新绿又出现在眼前。微风掠过一丛丛绿色的麦苗，便随风摇曳，仿佛就是绿色的波浪在晃动。老鹰也悠闲地画着圈，翱翔在春天的天空中，更加增添了春天的情韵。

“在暖暖的盛春里绽放，在暖暖的盛春里绽放。”

我大声地吟诵两遍后，点上了一支烟。我吐出的烟，袅袅地飘向了空中。

하늘에도 봄이 왔다.

하늘은 낮았다.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넉넉히 만질 수가 있으리만큼 하늘은 낮다. 그리고 그 낮은 하늘보다는 오히려 더 높이 있는 듯한 분홍빛 구름은 뭉글뭉글 엉키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렇게 마음껏 봄의 속삭임을 들을 때는 언제든 유토피아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것은 ——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역시 유토피아 건설에 있지 않을까?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는 언제든 그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 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진나라 시황(秦始皇)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찌하면 죽지를 아니할까 하여 동남 삼백을 배를 태워 불사약을 구하러 떠나보내며, 예술의 사치를 다하여 아방궁을 지으며 매일 신하 몇 천 명과 잔치로써 즐기며, 이리하여 여기 한 유토피아를 세우려던 시황은, 몇 만의 역사가가 어떻다고 욕을 하든 그는 참말로 인생의 향락자며 역사 이후의 제일 큰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만한 순전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지라도 한사람을 가졌었다고 할 수 있다.

"큰 사람이었었다."

하면서 나는 머리를 들었다.

이때다. 기자묘 근처에서 무슨 슬픈 음률이 봄 공기를 진동시키며 날아오는 것이 들렸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영유 배따라기' 다. 그것도 웬만한 광대나 기생은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리만큼 —— 그만큼 그 배따라기의 주인은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天空里也是一片春色。

天空很低，似乎站在牡丹峰山顶就触手可及。一朵又一朵彩云连成一片，游荡在蓝天中。

我欣赏着美丽的春色，聆听着春天的窃窃私语，不禁想起了乌托邦。我们时时刻刻在努力、奋斗——到底为了什么？难道不就是为了建设乌托邦吗？

说起乌托邦，总会想起一个人，就是“拥有伟大人格”“尽享人类的伟大”的秦国秦始皇。

人如何做到长生不死，出于这种构想，他命三百童男乘船去找长生不老药；还不惜融入所有艺术，修建了奢侈的阿房宫；成天与几千大臣饮宴欢娱。虽有几万历史学家抨击他的所为，但秦始皇才是真正的人生享乐者，是有了人类历史后的第一伟人。有了像他这样一位勇气十足的伟人，即便是人类历史宣告结束的那一天，我们也可以为拥有过这么一个伟人而感到自豪。

“的确是个人物啊。”

我自言自语道。

这时，从箕子庙附近传来了令人伤感的歌声，歌声搅动了春天平和的空气。

我聆听着这个歌声。

唱的是《永柔船歌》，那水平一般的艺人或歌妓也会自叹不如，唱船歌的人的水平真是不一般。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천후토 일월성신 하나님전 비나이다.
실낱같은 우리목숨 살려달라 비나이다.
에 —— 야, 어그여지여.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저편 아래 물에서 장고(長鼓) 소리와 함께 기생의 노래가 울리어 오며 배따라기는 그만 안 들리게 되었다.

나는 이 년 전 한여름을 영유서 지내본 일이 있다. 배따라기의 본고장인 영유를 몇 달 있어본 사람은 그 배따라기에 대하여 언제든 한 속절없는 애처로움을 깨달을 터이다.

영유, 이름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앞은 망망한 황해이니, 그곳 저녁때의 경치를 한번 본 사람은 영구히 잊을 수가 없으리라. 불덩어리 같은 커다란 시뻘건 해가 남실남실 넘치는 바다에 도로 빠질 듯, 도로 솟아오를 듯 춤을 추며, 때때로 보이지 않는 배에서 배따라기만 슬프게 날아오는 것을 들을 때면 눈물 많은 나는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이로 보아서 어떤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낡은 신 같이 내어 던지고 뱃사람과 정처 없는 물길을 떠났다 함도 믿지 못할 말이랄 수가 없다.

영유서 돌아온 뒤에도 그 '배따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기어져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제 한번 다시 영유를 가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경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았다.

장고 소리와 기생의 노래는 멎고, 배따라기만 구슬프

求求您了，求求您了
山川后土 日月星辰 求求您了 老天爷啊
我们生命 危在旦夕 求求您了 救救我们
哎——呀，哎呀呀。

这时，江那边又传来了歌妓的歌声与长鼓的伴奏声，搅得听不到那船歌了。

两年前，我曾在永柔度过一个盛夏。永柔是船歌的发源地，只要是在那里呆过几个月的人，都会领悟到其中无可奈何的哀怨。

也许你不曾听说“永柔”这个地方，但是，当你站在×山顶向下俯瞰，眼前便是一望无际的黄海，这里的黄昏景色会让你一辈子都不会忘怀。红彤彤的太阳犹如一个大火球，在海上若隐若现，如同在海面上翩翩起舞。这时，会听到不知从哪条渔船上传来的伤感船歌，忍不住泪水的我，常常因此而泪流满面。由此看来，传说中县官妻子像扔掉一双旧鞋一样，抛开拥有的荣华富贵，然后和渔夫踏上不归路的故事，不能说一点根据都没有。

从永柔回来之后，那首“船歌”深刻在我心中，让我久久不能忘怀。我总想着一定找一个机会再次回到永柔，再次欣赏那首“船歌”，再次陶醉在那美丽的景色中。

长鼓的声音和歌妓的歌声停止，传来的只

게 날아온다. 결결이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들을 수가 없으되, 나의 기억과 곡조를 부합하여 들은 배따라기는 이 대목이다 ——

강변에 나왔다가
나를 보더니만
혼비백산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생신지 꿈인지
와륵 달려들어
섬섬옥수로 붙여잡고
호천망극 하는 말이
"하늘로서 떨어지며
땅으로서 솟아났다
바람결에 묻어오고
구름길에 싸여 왔나"
이리 서로 붙들고 울음 울 제,
인리 제인이며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

여기까지 들은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소나무 가지에 걸었던 모자를 내려 쓰고, 그곳을 찾으러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섰다. 꼭대기는 좀더 노래 소리가 잘 들린다. 그는 배따라기의 맨 마지막, 여기를 부른다.

밥을 빌어서
죽을 쑬지라도
제발 덕분에

是悲伤的船歌。歌声时而埋没在呼呼的风声中，凭着记忆和断断续续传来的歌声，船歌的歌词大概是这样的：

你来到江边
看到我
便魂飞魄散
这是梦还是现实
是现实还是梦
你跑到我的眼前
纤纤玉手抓住我
昊天罔极地述说
“是从天而降
还是从地而生
是随风飘来
还是藏在云中”
我们相拥痛哭流泪时
邻里诸人
亲戚眷属齐聚一堂

听到这里，我忍不住一跃而起，取下挂在松树枝上的帽子戴在头上，爬上牡丹峰山顶，为了寻找歌声来处，登上了牡丹峰顶。来到山顶显得更加清晰。此时，正唱到了船歌最后这么一段：

即使乞讨
喝稀粥
千万千万

뱃놈 노릇은 하지 마라.

에 —— 야 어그여지여 ——

그의 소리로써 방향을 찾으려던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섰다.

"어딘가? 기자묘? 혹은 을밀대?"

그러나 나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든 찾아보자 하고 현무문으로 가서 문밖에 썩 나섰다.

기자묘의 깊은 솔밭은 눈앞에 쫙 퍼진다.

"어딘가?"

나는 또 물어보았다.

이때에 그는 또다시 배따라기를 첫번부터 부른다. 그 소리는 왼편에서 온다.

왼편이구나 하면서 소리 나는 곳을 더듬어 소나무 틈으로 한참 돌다가, 겨우 기자묘 치고는 그중 하늘이 넓고 밝은 곳에 혼자서 뒹굴고 있는 그를 찾아내었다. 나의 생각한 바와 같은 얼굴이다. 얼굴, 코, 입, 눈, 몸집이 모두 네모나고…… 그의 이마의 굵은 주름살과 시커먼 눈썹은 고생 많이 함과 순진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는 어떤 신사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노래를 그치고 일어나 앉는다.

"왜? 그냥 하지요."

하면서 나는 그의 곁에 가 앉았다.

"머……"

할 뿐, 그는 눈을 들어서 터진 하늘을 쳐다본다.

좋은 눈이었다. 바다의 넓고 큼이 유감없이 그의 눈에 나타나 있다. 그는 뱃사람이라 나는 짐작하였다.

别去做渔夫
啊——呀，哎呀呀。

原本是打算顺着声音的方向去寻找，但是，我却停止了脚步。

“这是在哪儿？箕子庙，还是乙密台？”

我不能这样呆呆地站在这里，不管怎样，我也要找到这个歌声传来的地方。

于是，我走出玄武门，箕子庙的那片松树林，映入了我的眼帘。

“是哪儿呢？”

我自言自语道。

这个时候，船歌声再度响起，歌声是从左侧传来的。

我朝着声音传来的左侧走去，在松树林间我找了好一会儿，终于在箕子庙前不多见的开阔地里，发现了独自一人躺在那里的他。和我想象的一样，他的脸庞、鼻子、嘴、眼睛、身材，都显得很有棱角，额头上深深的皱纹，还有浓密的眉毛，预示着他所经历的沧桑和淳朴的性格。

他见到有个绅士在看着自己，便停止了唱歌，起身坐在地上。

“怎么？继续唱嘛。”

我凑近他的身边，边坐边问。

“我……”

他略有反应，但随即便抬起头仰望天空。

那眼睛，是双像大海一样深邃的眼睛，我猜想他是一个渔夫。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